

일제강점기 ‘플뿌리 식민자’의 조선 이주 —구포 ‘향도(尙島)’ 지역 이주 일본인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가연**

〈목 차〉

- | | |
|--------------------------------------|------------------------------------|
| I. 머리말 : 동북아해역 제국의 이동, 근대 일본인의 조선 이주 | IV. 농업 경영의 다각화와 활동영역의 확장 |
| II. 구포 ‘향도(尙島)’로 이주 | V. 맺음말 : 이주 일본인들에게 있어 ‘식민지 조선’의 의미 |
| III. 식민지 지주로 성장 | 참고문헌 |
| | <Abstract> |

〈국문요약〉

1910년 강제 병합 이후 일본 정부가 본격적인 식민지 지배를 위해 고안해낸 여러 정책들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실행의 주체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 이주 일본인, 이른바 재조일본인들은 식민권력의 대리자가 되어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평범한 일본인이었던 쿠즈메 타다오[葛目忠雄]는 ‘절대(일본으로)돌아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1912년 일본 고치현[高知縣]에서 해역을 넘어 경상남도 구포 ‘향도’(尙島, 지금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일대)로 이주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과수원과 과수전을 경영하였고 1927년에는 동래군 서면 부암리로 이전하여 전문 포도농장을 경영하였다. 그리고 조선 이주 27년만인 1939년, 조선을 떠나 만주에서 자동차 수리사업에 종사하였다. 그곳에서 패전 임박 소식을 듣고 1945년 8월 9일 귀환길[引揚]에 나서서 1946년 10월 5일 나가사키의 사세보항[佐世保港]으로 귀환하였다. 그 후 나가사키와 구마모토를 돌아다니며 행상을 하였고 구마모토에서 결국 포도 관계 사업으로 돌아갔다. 쿠즈메 타다오는 20세기 초중반, 일본 제국의 확장에 발맞춰 일본-조선-만주로 이주하였고, 식민자로서 우월한 위치에 설 수 있었던 이곳에서 ‘성공’을 일구어냈다. 한 개인이 식민지에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노력도 물론 중요했지만, ‘제국 일본’이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주제어 : 일본 제국, 이주, 향도, 대저, 재조일본인, 식민자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869)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I. 머리말 : 동북아해역 제국의 이동, 근대 일본인의 조선 이주

일본의 조선 통치는 정치·군사적인 지배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1910년 강제병합 이후 본격적인 식민지 지배를 위해 고안해낸 여러 정책들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실행의 주체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 이주 일본인, 이른바 재조일본인들은 식민권력의 대리자가 되어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침략의 선봉’, ‘풀뿌리 침략자’, ‘풀뿌리 식민 지배’로 부르기도 한다. 제국의 이름 모를 평범한 사람들이 조선으로 이주한 것은 일본이 식민지를 지배하는 데 강인한 뿌리가 되었다.¹⁾ 1876년 개항 당시 100여 명 남짓이었던 조선 이주 일본인들은 러일전쟁, 강제병합을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패전을 즈음해서는 약 100만에 달하였다.

지금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조일본인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왔다.²⁾ 이제는 이러한 거시적인 연구를 발판으로 삼아 재조일본인 사회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에 들어가 조선인들과 부딪히며 생활한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에게 있어 ‘차별’과 ‘멸시’의 현실을 실감케 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조일본인 개인의 이주 시기와 이주 경위, 조선에서의 활동 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많은 일본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조선으로 이주하여 생활하였고 그들의 의식이나 행동 등이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별 사례 연구는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평범한 한 개인에 대한 사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10년대 구포 ‘향도(尙島)’ 지역으로 이주한 일본인 가족의 사례를 통해 조선으로의 이주 경위와 식민지 지주로의 전환, 사업 확장 과정 등을 살펴보면서 식민지 조선 일본인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드러내고자 한다.

구포 ‘향도’는 지금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일대를 가리킨다. 조선시대에는 양산군에 소속되어 있었고, 1906년 이후 김해군 대저면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

1) 다카사키 소지 저, 이규수 역,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 역사비평사, 2006, 3면.

2) 재조일본인 연구사는 전성현, 「식민자와 식민지민 사이, ‘재조일본인’ 연구의 동향과 쟁점」, 『역사와 세계』, 효원사학회, 2015를 참고하기 바란다.

다가 1978년 부산시에 편입되어 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속하게 되었다. 1910년 강제병합 이전부터 일본인들이 이주해 살기 시작했으며, 강점 이후 본격적으로 이주농촌이 형성된 곳이다. 따라서 현재도 일본식 가옥 등 이주농촌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곳은 저지대인데다 바로 옆 낙동강의 잦은 범람으로 인해 1910년대 초기까지만 해도 수전으로서 본격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미간지로 남아 있는 곳이 많았다. 당시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 일본인들은 토지개량사업과 농사개량사업으로 良田을 만들어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곤 했는데, 대저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질 좋은 미간지’를 대거 확보할 수 있는 곳이었다.³⁾ 이곳의 일본인들은 낙동강 유역의 미간지를 개간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대지주로 ‘성공’하기 위해 해역을 넘어 이주하였다. 본문에서 살펴볼 쿠즈메 타다오[葛目忠雄]라는 한 평범한 일본인 가족 또한 ‘절대(일본으로)돌아가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고 1912년 ‘향도’로 이주하였다.⁴⁾

II. 구포 ‘향도(向島)’로 이주

1. 고향 히지마[比島]를 떠나며

쿠즈메 타다오는 1900년 3월 10일 고치현[高知縣] 토사군[土佐郡] 에노구치초[江の口町] 히지마[比島]에서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쿠즈메 이노스케[葛目猪之助]는 메이지대학 법률학교를 졸업한 후 귀향하여 지방정치에 관여하

3) 최원규, 「19세기 후반-20세기 초 경남지역 일본인 지주의 형성과정과 투자사례」, 『한국민족문화』 1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9, 98면.

4) 葛目忠雄, 『いごつそう傳記(前篇)』, くずめブドウ研究所, 1980, 37면.

이 글의 주자료는 葛目忠雄가 쓴 『いごつそう傳記(前篇, 後篇)』(くずめブドウ研究所, 1980)이다. 자서전적 성격이며 전편, 후편으로 나뉘어져 있다. 전편에서는 저자의 탄생과 쿠즈메 가문에 대한 소개, 조선 이주 및 생활, 만주로의 재이주 및 생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후편은 1945년 패전 이후 인양과정과 이후 일본에서의 정착 생활이 서술되어 있다. ‘향도’와 부산에서의 생활을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재조일본인 연구는 물론 지역사 연구에도 참고가 될 만한 자료로 생각된다.

였다. 그러나 지방정치 활동은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수입이 거의 없었고⁵⁾ 할머니와 어머니가 농업으로 가계를 겨우 꾸려 나가던 상황이었다. 할머니의 고령화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가정 경제를 책임지게 된 이후부터 가계는 급속히 나빠졌다. 지역의 유망한 정치 신인인 쿠즈메가의 경제력은 일견 일반 레벨을 상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나빠지기만 할 뿐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아버지 이노스케는 ‘신 개척지’ 조선 이주를 결심하였다.⁶⁾ 1910년 병합 직후부터 이노스케는 조선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같은 마을의 다나베[田内熊猪]라는 청년이 조선으로 이주한 선배에게 다녀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소개로 당시 ‘향도’에 거주 중이던 동향의 일본인을 직접 찾아가 이 일대를 시찰하였다. 시찰 중 이곳으로의 이주를 결정하고 유망한 사업으로 추천한 과수원의 구입도 의뢰하고 돌아왔다.⁷⁾ 그 일본인은 배, 사과, 포도 2~3년생 과수원 3정보를 대신 매입해 주었다. 이 과수원은 이주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것이었다.⁸⁾

이노스케는 ‘다시는 향리의 땅을 밟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로 전 재산을 처분하였다. 당시 조선 이주자 가운데서는 조선을 빈곤 타개를 위한 일시적인 돈벌이 장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따라서 다시 되돌아 올 것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생계 수단은 남겨두고 조선으로 이주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쿠즈메 일가는 일본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1년에 걸쳐 모든 재산을 처분하였다. 그리고 1912년 11월, 경지 3정보와 집 1채, 가재도구까지 판 금액 1만 5천 엔을 가지고 바다를 건넜다. 아버지 이노스케는 42세, 어머니는 39세, 타다오는 12세였다. 토사군의 우라도항[浦戶港]을 출발하여 고베항[神戸港]에 상륙, 다음날 고베역에서 기차로 시모노세키[下關]로 가서 관부연락선을 타고 조선으로 향했다.⁹⁾

5) 葛目忠雄, 위의 책, 전편, 27면.

6) 葛目忠雄, 위의 책, 전편, 35면.

7) 葛目忠雄, 위의 책, 전편, 78~79면.

8) 葛目忠雄, 위의 책, 전편, 37면.

9) 葛目忠雄, 위의 책, 전편, 7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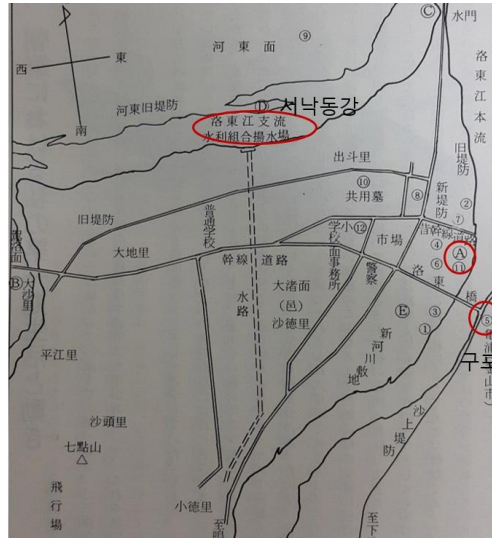
2. 구포 ‘향도’에 도착하여

부산항에 도착한 쿠즈메 일가는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50분 만에 구포역에 도착하였다. 당시만 해도 구포와 대저는 수운을 이용하여 이동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작은 배를 타고 낙동강을 건너 ‘향도’에 도착하였다. 도선장은 구포역 앞의 낙동강 변을 따라 500m 정도 상류에 있었다.¹⁰⁾ 구포는 전통적으로 낙동강 수로의 주요 거점으로서 조운의 중심지였다. 간선철도 경부선 구포역이 설치되면서 구포는 더욱 더 이동과 상업의 중요 지점이 되었으며 역 근처에 형성된 구포시장은 전국에서 손에 꼽힐만한 규모였다. 당시 대저에서 생산되던 과일들은 거의 대부분 구포시장을 통해 판매되었다. 대저가 속칭 구포 ‘향도’로 불리게 된 것 또한 중요 도시 구포의 對岸에 위치한 섬이라는 의미로 생각된다.

쿠즈메 일가가 이주할 당시 대저의 방수 제방 내에는 개간이 되어 있었고 80%가 수전, 20%가 밭이었다. 그러나 저지대에는 아직 갈대밭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일찍부터 동양척식주식회사 주도로 농경지대로서는 최고의 개발이 진행되던 곳이었으며 그렇기에 이주 일본인들이 많았다. 대부분 농업이민이었는데, 과수원 경영이 많았고 일부 채소 생산 농가도 있었다. 생산물은 주로 부산 시장에 출하하였으나 과일의 경우 조선인 행상에게 직매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저 인구의 80%는 조선인므로, 대부분은 수전 농업에 종사하였고 일본인 농가의 노동자도 있었다. 대저 선착장에서 100m 정도 안쪽에 방수 제방이 있었고 제방 내의 간선도로 연변 좌측에 쿠즈메 일가가 미리 구입해둔 과수원과 주택 겸 창고가 있었다(<그림 1>의 ㉠지역).¹¹⁾

10) 1930년에 가사야 연결 다리 공사가 시작되었고, 1932년 완공된 이 다리를 낙동장교 또는 구포교로 불렀다.

11) 葛目忠雄, 위의 책, 81면.



<그림 1> 1980년 쿠즈메가 직접 그린 대저 지역의 모습. 당시 본인 및 이웃한 이주 일본인들의 거주지를 직접 지도에 표시하였다. A 지역이 쿠즈메 일가가 거주하던 곳이며 이곳 바로 건너편에 구포가 있다.

*출처: 葛目忠雄, 『いごつそう傳記(前篇)』, くずめブドウ研究所, 1980, 91면.

3. 대저 이주농촌의 형성

머리말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포 ‘향도’는 지금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일대를 말한다. 대저는 조선시대까지 행정구역상 양산군 대상면, 대하면이었다. 1906년 9월 행정구역 정리에 따라 대상면, 대하면을 김해군에 편입시켰고 1914년 府郡 통폐합에 따라 대상면과 대하면을 합쳐 대저면이 되었다. 대저는 지리적으로 김해와 가까울 뿐만 아니라 당시 김해평야 지역에 집중적으로 농지개량사업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저 또한 농업 집중지역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랐다.¹²⁾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한국 농촌에서 기존의 식량·원료 공급지라는 식민지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과잉인구 배출지로서의 기능을 병행하도록 하였다. 일본

12)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구지』, 1993, 198면.

은 청일전쟁 이후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인구과잉과 식량 부족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도시화로 인해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식량 부족 현상은 만성화되었다. 매년 쌀 수입을 늘려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였다. 일본 내에서는 식량생산의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할 것이며, 장차 식료품 수입이 격증하고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예측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구과잉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만 했다. 이러한 일본이 관심을 가진 곳이 바로 한국과 만주였다. 일본은 러일전쟁 직전부터 한국 농촌에 관심을 갖고 실태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한국은 일본에 비해 단위 면적당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주의 여지가 충분하며, 개간 가능한 미간지가 많기 때문에 일본 농민을 대규모로 이주시켜 미간지를 개간함으로써 한국 내 농업 척식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필요 이상으로 일본 내 인구과잉과 식량부족 문제를 강조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민지를 개척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어 놓았다. 즉 대륙침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러한 사회 문제를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¹³⁾

대한제국 시기 외국인은 본인 명의로 토지소유권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제는 법령을 정비하여 일본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였고, 그 때부터 일본인 지주들의 조선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들은 일본 내에서도 중소자본가 또는 중소지주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선의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이주하였다. 1910년 병합 이전 이미 조선의 농촌은 일본인 지주들이 잠식해가고 있었다. 특히 경상, 전라 등 평야를 끼고 있는 지역은 집중 대상 지역이 되었다. 김해는 낙동강을 끼고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일본인들이 주목하고 있던 지역이었다. 그 중에서도 대저는 낙동강의 잦은 범람으로 미간지가 꽤 펼쳐져있던 곳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개발 이익을 노린 일본인들이 일찍부터 진출하였다. 특히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조선으로 일본인들의 이주를 적극 권장하였다. 동척은 1911년 제1회 이민을 시작으로 1927년까지 총 17차례의 이민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대저에는 출두리 지역을 중심으로 동척의 이주농촌이 형성

13) 정연태, 「대한제국 후기 일제의 농업식민론과 이주식민정책」, 『한국문화』 14,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3, 453-474면.

되었다.¹⁴⁾

Ⅲ. 식민지 지주로 성장

1. 과수원 경영

대저의 일본인들은 과수재배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작물은 배, 사과, 포도, 복숭아 등 다양했으나, 그중에서도 배가 제일 유명했다. 대저 배는 일면 ‘구포배’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렸다.

쿠즈메 일가는 조선으로 건너오기 전에 이미 가옥과 과수원을 매입했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과수재배는 처음이었기에 타다오는 농업에 문외한인 아버지를 대신하여 경기도 수원시의 모범시험장으로 가서 기술을 전수받고 일본의 과수재배 지역을 시찰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였다. 이들이 대저에서 식목한 것은 배 1ha, 사과 1.5ha, 포도 0.5ha였다. 사과의 면적이 많았으나 수입은 배의 50~60%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당시 과일을 짜는 종이는 집에서 만들었는데, 신문지를 잘라 감 즈이나 식물성 유지를 바른 것이었다.¹⁵⁾

과일은 구포로 건너가 판매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자택에서 직매하는 방식으로 소비하였다. 대개 조선인 중년 여성들이 소매 행상인이었다. 판매 방식은 같은 규격의 상품을 100개씩 나무 상자에 넣고 가격표를 붙여 나란히 두고 행상들이 선택하는 방식이었다.¹⁶⁾

1920년대에 들어서 과수재배 상황이 변화하였다. 각지에서 과수재배가 성행하였고 품종에 따라 가격 경쟁에서 유리한 과수가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했기에 사과 보다는 배를 더 많이 심었고 포도도 대폭 축소하였다. 쿠즈메 일가는 이 외 2정보 정도 토지를 더 매입하여 감을 심었는데, 토지가 모래질에다 건

14)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구지』, 1993, 198면.

15) 葛目忠雄, 위의 책, 전편, 94-95면.

16) 葛目忠雄, 위의 책, 전편, 38면.

조했기 때문에 대지에서 감으로 성공한 사람은 없었다. 이들이 경영한 과수원은 1925년 수리조합에 의한 낙동강 개수공사가 결정되어 과수원, 양계장, 주택 전부가 이전해야만 하였다.¹⁷⁾

2. 대저수리조합 설치

이들 가족이 이주할 당시 대저는 낙동강의 본류와 지류에 둘러싸인 4,000ha 정도의 섬이었다. 이 가운데 약 3,000ha는 수전이었지만 관개 수리 시설은 전혀 없었고, 강우에 따른 천수전(天水田)으로 평균 2년에 1번 밖에 수확할 수 없었다. 이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타다오의 아버지 이노스케는 수리조합사업을 계획하고 주위 뜻을 같이하는 이주 일본인들과 여러 방면에 진정을 하여 대저수리조합을 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¹⁸⁾ 당시 대저에는 동척 사유지가 상당히 많았고 개별 일본인 180여 명이 평균 5정보 정도 소유하고 있었다. 이곳은 일본인 지주경영 외에 자작경영도 상당 정도 시행되었다. 일본인 농업경영자들은 일찍이 낙동강 일대의 미간지에 주목하여 혈값으로 이를 확보하고 토지개량과 농사개량사업을 통해 경작지로 만들어 지주가 되었다. 이어서 본격적인 농업을 추진하여 질적 양적으로 ‘발전’해 갔다. 이것은 일견 평범한 일본인이 자기 자본을 동원하여 이룩한 성과로 보이지만, 정치·군사적 힘으로 무장한 일본 ‘제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¹⁹⁾ 쿠즈메 일가가 이곳에서 계속 농업경영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제국’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대저수리조합은 1919년 준공되었다. 이 자서전에는 대저수리조합 설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일본인들 사이의 논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예컨대 수리공사 반대파들은 ‘다액의 수리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쌀을 수확해도 수지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땅을 파는 경우도 있었다. 그 여파로 대저지역에는 예상치

17) 葛目忠雄, 위의 책, 전편, 204면.

18) 葛目忠雄, 위의 책, 전편, 39면.

19) 최원규, 「19세기 후반-20세기 초 경남지역 일본인 지주의 형성과정과 투자사례」, 『한국민족문화』 1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9, 103면.

얇게 1反(10a) 당 20~30엔이라는 싼값의 매매가 이어졌는데 공사 완성 후에는 2~3 배로 땅값이 치솟았다. 수리조합 사업을 주도하던 쿠즈메 이노스케는 경영하던 과수원이 용수로에 의해 3개로 나뉘지게 되었으나 수리조합 설립과 동시에 조합장이 되어 대저를 떠날 때까지 이 일에 전념하였다.²⁰⁾

대저수리조합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이 조합은 경남 김해군 대저면 출두리, 사덕리, 대강리, 평강리, 사두리, 위만리, 소덕리, 덕두리, 도도리 등 1면 9개 리에 산재한 약 1800정보의 토지를 구역으로 하는 것인데, 1915년 9월 20일에 설립 인가가 있었고, 설립 본 인가는 1916년 11월 14일이었다. 공사 준공은 1917년 7월 31일이었다. 최초 조합 설립의 목적은 ‘조합구역 내의 관개배수 및 수해 예방’이었다.²¹⁾ 조합 설립 당시인 1917년과 1925년 현재 구내 면적의 차이(토지개량 상황)는 다음과 같다.

〈표 1〉 구역 내 총면적(지목별) 단위: 정보

	1917년	1925년
畓	1485	1678
田	407	132
叢	23	39
잡종지	55	14
계	1970	1865

*참조: 『동아일보』 1927.11.8

〈표 1〉을 보면 논 면적이 약 193정보 증가되었는데, 이는 밭과 잡종지가 開畓된 것이며, 대지가 약 16정보 증가된 것은 조합 설립 후 구역 내에 민가가 늘었기 때문이었다. 논과 대지가 증가된 만큼 밭과 잡종지는 감소되었다.²²⁾

다음으로 1920년대 중반이 되면 조합 설립 당초보다 일본인 지주가 배로 증가하고 일본인 소유의 토지도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표 2〉 참고).

20) 葛目忠雄, 위의 책, 전편, 40면.

21) 『동아일보』 1927.11.8, 「낙동강 합류처 몽리구 1800정보」

22) 다만 총 면적이 감소한 것은 소덕리의 구역 축소 100정보 정도 있었기 때문이었다(『동아일보』 1927.11.8. 참고).

〈표 2〉 민족별 지주 수 및 소유 면적

	1917년		1925년	
	지주 수(명)	소유면적(정보)	지주 수(명)	소유면적(정보)
조선인	666	622	679	491
일본인	180	814	276	1001
국유지	1	297	1	86
동척	1	62	1	235
기타 사유지	2	175	2	46
계	850	1970	959	1861

*참조: 『동아일보』 1927.11.8

같은 기간 조선인 지주는 13명 증가하였지만 소유면적은 오히려 약 131정보 감소되었고, 일본인 지주는 96명이 증가되었으나 소유면적은 약 187정보 늘었다. 여기서 일본인 지주는 개인지주를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일본인 인구와 면적이 모두 증가했다는 사실이며, 새로 늘어난 96명의 일본인 지주에 대하여 면적 증가는 약 187정보니까 1인 평균 2정보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였다는 것이다.

다음 국유지는 설립 당시 297정보였으나 10년이 지난 후 겨우 86정보로 211정보나 감소되었다. 그 원인은 당연히 불하하였거나 또는 대부한 결과인데, 조선인의 소유지가 증가하지 못했으니 결국 일본인의 소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척 소유지는 설립 당초 62정보에 불과하던 것이 10년을 경과한 후에는 235정보로 막대하게 증가하였다. 기타 사유지는 동척과 같은 특별한 회사 이외 일본인 경영 민간 회사의 소유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요컨대 대저수리조합 설립 이후 조선인 지주는 증가하지만 소유면적은 감소하였고, 일본인은 지주 수뿐만 아니라 소유면적도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저수리조합 구역 내 대지주는 <표 3>과 같다.

〈표 3〉 대저수리조합 내 10정보 이상 대지주

단위: 町步

소유자	동척	국유지	산업주식회사
면적	235	86	43
소유자	北村藤七	梶本, 北村 공유	梶本福太郎
면적	24	19	12

소유자	花園佐吉	葛目猪之助	大崎與七郎
면적	151	21	15
소유자	李鄉雨	金邦漢	계
면적	23	13	642(이상)

대저수리조합 총 면적 1861 정보 중 3분의 1 이상이 <표 3>의 10명 소유인데, 10 정보 이상을 소유한 조선인은 겨우 2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표 2>의 민족별 토지 소유 상황에서 본 것과 같이 총 면적 1861 정보 중에서 조선인 소유는 겨우 491 정보에 불과하므로, 총 면적의 겨우 26% 밖에 되지 않는다.²³⁾ 쿠즈메 이노스케의 경우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1 정보를 소유함으로써 대주지로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해당 지역 이주 일본인들이 주도한 수리조합 사업은 그들의 경제적 카르텔을 더욱 공고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 이주농업자의 침투를 더욱 용이하게 하였다.

IV. 농업 경영의 다각화와 활동영역의 확장

1. 양계업으로 진출

쿠즈메 타다오는 1920~1922년 도쿄에서 2년간의 의무 병역을 마치고 다시 대저로 돌아와 과수원 경영에 매진하였다. 과수재배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도선 초기만 큼은 아니었다. 그래서 과수원 내에서 양계 겸업을 시도하였다. 전부터 자가용으로 약간의 닭을 키우고 있었기에 이 규모를 확대하여 기업화하려고 하였다. 이에 당시 일본에서 가장 양계가 번성한 나고야[名古屋] 지역의 日本社라는 회사에 가서 방법을 전수 받았다. 특히 인공 부화업이 유망하다는 것을 알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결국 孵卵器 제작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조선으로 돌아와 양계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쿠즈메 일가의 양계 부화사업은 시작한지 3년째부터 이윤을 남기기 시작했다. 이에 쿠

23) 『동아일보』 1927.11.8, 「구내 대저주 동척이 수위」

즈메 타다오는 과수원은 동생과 고용인들에게 맡기고 계사, 부화실, 育雛室의 증축, 부화기의 제작 등 양계사업의 확장에 전념했다.²⁴⁾

양계사업이 점차 안정되어 가던 중 1925년 여름, 낙동강의 홍수로 대저의 방수 제방이 파괴되어 큰 수해를 입었다. 타다오의 집은 제방과 같은 높이에 택지를 조성하여 신축했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덜했지만 낮은 곳에 위치한 과수원, 창고, 양계설비 등의 피해는 컸다. 수확 직전이었던 과수는 50%의 피해를 입었고, 양계장에서는 종계의 피해가 컸다. 수전은 150정보(경영면적의 60%), 고급 종계 500마리(전 종계의 50%), 양계설비 30%, 건축물 피해 30% 내외로 피해액이 꽤 컸다. 그럼에도 쿠즈메 일가는 당장 생활이 곤란하지 않았고 그 후 농장 경영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았다. 이는 이들이 그동안 조선에서 축적한 자금이 적지 않았음을 추측하게 한다. 이후에도 타다오는 양계 부화 사업에 계속 투자하였다. 스스로 ‘지금까지의 사업 중 최대의 투자’라고 할 정도였다. 당시 근처에 다른 인공부화장이 없었기 때문에 병아리 판매가 활발했고 그에 따라 투자 회수도 원활한 편이었다. 그러나 낙동강 개수 공사가 시작되면서 양계 시설을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25년의 대수해, 이어 발생한 병아리 축사 화재, 관리해야 할 대부수전 면적의 증가 등으로 결국 양계 사업은 폐업하기로 결정하였다.²⁵⁾

양계 사업을 폐업하면서 쿠즈메 일가는 활동 영역을 넓히기로 하였다. 즉 대저를 벗어나 부산 교외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과수재배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과 동시에 장래 토지 거래 차익을 노린 것으로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망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²⁶⁾

2. 부산으로 활동영역 확장

1926년 무렵 낙동강 개수 공사가 결정되었다. 대저 지역의 상부에 본류와 지류(서낙동강)가 나뉘는 곳을 분기점으로 지류를 막고 수문을 만들어 하류에 흐르는

24) 葛目忠雄, 위의 책, 전편, 205~207면.

25) 葛目忠雄, 위의 책, 전편, 209~210면.

26) 葛目忠雄, 위의 책, 전편, 211면.

물을 조절하고, 본류의 하폭을 넓혀 대 제방을 쌓아 수해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공사를 위해 대저 상부의 낙동강 본류와 가까운 장소가 새롭게 약 500m폭의 하천 부지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이 토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곳은 대저에서는 가장 비옥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일본인이 가장 많은 장소였다. 이전 대상자들은 대부분 대저 내에서 이전지를 선택하였고 소수 몇 명은 일본으로 돌아갔다.

쿠즈메 타다오는 이전지 결정의 조건으로 토지와 노임이 싸고 장래 경제적으로 발전할 장소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대저를 벗어나기로 했다. 당시 대저는 발전이 정점에 이르러 지가와 노임이 비싸고 장래 농지 이외 이용이 불가능한 장소라고 생각하였다. 처음에는 남미 브라질로 이주를 고려하였으나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강원도로 가서 대규모 사과농장을 경영하려 했으나 의료, 교육의 문제가 심각하여 단념했다. 마지막으로 결정한 곳이 부산 외곽의 서면이었다. 지금은 부산 제일의 중심지이지만, 당시만 해도 서면은 동래군에 속해 있었다. 이곳에서도 과수원을 경영할 생각이었지만, 그것보다도 부산의 도시 확대에 이곳이 시가지화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한 결과였다. 서면이라면 가족들은 원래 거주하던 대저에 그대로 거주할 수 있고 대저에 남겨둔 토지의 관리도 직접 가능하였다.²⁷⁾ 서면 부암리로 이전을 결정하고 곧바로 용지를 수용하여 1927년부터 포도 재배 전문 농원 개원에 착수하였다. 품종 시험과 포도 전문의 종묘육성판매를 계획한 것이기에 입하 가능한 품종을 전부 모았다. 그 결과 1935년 무렵에는 상당량의 종묘를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²⁸⁾

쿠즈메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지가는 대저의 경우, 수전 1평(3.3m²) 40~70전, 전지는 1~1.5엔, 서면의 경우 수전 1.5~3엔, 전지는 2.5~4엔으로 서면이 월등히 비쌌는데, 그나마 반듯하고 넓은 토지가 없고 영세 지주의 것을 사 모아야만 했다. 처음 타다오가 서면 땅을 구입했을 때 평당 2.1엔이었던 것이 차츰 가격이 올라 5엔까지 치솟았다. 장래 부동산 수익을 계산하고 이전했던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²⁹⁾

27) 葛目忠雄, 위의 책, 전편, 212면.

28) 葛目忠雄, 위의 책, 전편, 99면.

29) 葛目忠雄, 위의 책, 전편, 212~213면.

서면에서 계획한 과수재배는 포도 및 포도의 종묘 육성 판매를 주안으로 한 것이어서 대저에서 재배하고 있던 배와 사과는 전폐하였다. 1927년 개원한 1호 농원 2.5정보는 전부 포도원으로 하였고, 1928년에 확장한 2호 농원 1.5정보에는 예정을 변경하여 앵두[さくらんぼ] 농원으로 했다. 이 농원을 경상남도 동래군 서면 부암리의 지명을 따서 ‘부암원’으로 명명하고 포도 품종, 耐强性 시험 재배 연구에 몰입하였다. 부암원의 이름이 들어간 카달로그도 1930년부터 1936년까지 7년간 발행하였다. 부암원에서의 포도 재배는 꽤 성공적이어서 일본에서 주문이 이어졌고 타다오는 1929년에는 경상남도 포도생산판매가공조합연합회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³⁰⁾

쿠즈메 일가가 조선으로 이주하여 축적한 자산을 정리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2년 조선으로 이주할 당시 구입한 과수원과 수전은 30정보 내외였다. 그 후 과수 재배로 자본을 축적하여 1920년대에는 대저 내에서 수전만 100정보 정도가 되었다. 그 후 경남 양산군 화계면에 수전 50정보를 구입했고 그 후 낙동강 하천 개수 시 이전 보상금으로 대저의 평강리, 울만리, 경남 창원군에 40정보 내외의 토지를 구입하였다. 또 부산 교외 서면에 이전해서는 장래 지가의 상승을 노리고 이 부근에 토지 5~6정보를 구입하였다. 그 결과 1933년 쿠즈메 일가 형제들이 재산 분배를 할 때 200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³¹⁾ 1912년 처음 조선으로 이주할 때의 30정보가 20년 만에 약 7배 늘어난 200정보가 되었던 것이다.

3. 조선을 떠나 만주로

1937년 7월, 쿠즈메 타다오는 징병으로 2년간 군 생활을 하였다. 대구 80연대 소속으로 부산병참병원과 회령육군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1939년 7월 소집 해제되었다. 타다오가 소집되었을 무렵 형제간의 재산분배는 거의 다 끝났다. 타다오는 징병 중 관리의 어려움으로 자기 몫의 수전을 전부 매각하였다. 과수원 또한 동생이 관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소집 해제 되었을 때 조선에서 그가 운영하는 사업은

30) 葛目忠雄, 위의 책, 전편, 217면.

31) 葛目忠雄, 위의 책, 전편, 223~224면.

아무것도 없었지만 토지 매각으로 현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생활에 곤란은 없었다.³²⁾

다만, 회령육군병원에 있을 때 노몬한 사건을 눈으로 확인한 그는 전쟁에 극도의 의혹과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이 때문에 다시 사업을 하는 것도 불안했고 전황으로 보아 머지않아 다시 소집될 것이라 생각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군속이 되어 소집을 면제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상해에서 헌병사령관으로 있던 먼 친척에게 군속을 시켜달라고 부탁하였다. 군속이 되는 일이 급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었기에 쿠즈메 타다오는 조선을 떠나 만주로 가기로 한다. 그곳에서 잠시 동안 지인이 운영하던 자동차수리공장에 투자하여 동업 방식으로 일을 시작했다.³³⁾ 三協洋行은 자동차용품, 부품의 배급 판매, 낡은 자동차의 재생 가공과 일반 자동차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였다.³⁴⁾ 잠시 하려했던 이 일은 1945년 패전 무렵까지 이어졌다.

V. 맺음말 : 이주 일본인들에게 있어 ‘식민지 조선’의 의미

쿠즈메 타다오는 1912년 조선 경상남도 구포 ‘향도’에 이주하여 과수원과 수전을 경영하였고 1927년에는 동래군 서면 부암리로 이전하여 전문 포도농장을 경영하였다. 그리고 조선 이주 27년만인 1939년, 조선을 떠나 만주의 牧丹江으로 가서 자동차수리사업에 종사하였다.³⁵⁾ 三江省 鶴立縣 鶴岡街에 거주하던 중 패전 임박 소식을 듣고 1945년 8월 9일 귀환길[引揚]에 나서서 1946년 10월 5일 나가사키의 사세보항[佐世保港]에 도착하였다. 그 후 나가사키와 구마모토를 돌아다니며 행상을 하였고 구마모토에서 결국 포도 관계 사업으로 돌아갔다.³⁶⁾

32) 葛目忠雄, 위의 책, 전편, 272면.

33) 葛目忠雄, 위의 책, 전편, 273면.

34) 葛目忠雄, 위의 책, 전편, 300면.

35) 葛目忠雄, 위의 책, 전편, 264면.

36) 葛目忠雄, 위의 책, 전편, 211면.

다카사키 소지는 조선 이주 일본인이 식민지 조선을 바라보는 형태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제1유형은 자신들의 행동이 훌륭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부류, 제2유형은 순진하게 식민지 조선을 그리워하는 부류, 그리고 제3유형은 자기비판을 하는 부류이다.³⁷⁾ 그렇다면 쿠즈메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 것일까.

다카사키의 구분에 따르면 쿠즈메는 제2유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1965년 한 일협정이 체결된 후 그는 4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하였다. 주로 포도재배 관계의 일로 방문하였지만 방문할 때마다 부산과 ‘향도’를 둘러보았다. 그는 ‘향도’를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추억이 많은 곳이라고 하였다.³⁸⁾ 그러한 그의 자서전에는 ‘향도’에 대한 그리움이 관통하고 있다. 패전 이후 식민지에서의 삶을 급히 정리하고 일본으로 귀환해야 했던 이들의 삶은 한동안 불안했다. 1960년대 일본이 고도 성장기에 접어들었을 때, 비로소 이들의 생활도 안정되었고 이때부터 이들은 친목회를 결성하기 시작하였다. 경성회, 인천회처럼 대규모 조직의 동향회부터 여수회나 별교회처럼 소규모 동향회, 동창회 등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³⁹⁾ 쿠즈메 타다오가 관여한 친목회는 향도회와 김해회였다. 향도회는 1967년 11월 후쿠오카의 하카다에서 첫 모임이 있었고 1973년까지 격년으로 개최되었다가 1974년 제5회 부터는 매년 개최되었다. 제5회 참석자가 123명으로 정점이었고, 평균 70명 내외가 참석하였다. 김해회는 1972년 창립회가 개최되었다.⁴⁰⁾ 전후 이들에게 식민지 조선은 노스텔지어, 그리움으로 대상화되었다.

쿠즈메 타다오의 자서전은 식민지에서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담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훌륭한 것이었는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시도하지 않는다. 지극히 평범한 일본인인 그가 일본의 식민정책을 적극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다. 아울러 ‘식민지 지배자’로서 ‘성공’한 그에게서는 그에 대한 어떠한 자기비판도 읽을 수 없다. 그는 식민지 조선, 만주에서 ‘성공’을 일구어냈고 그 성공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

37) 다카사키 소지 저, 이규수 역, 위의 책, 190면.

38) 葛目忠雄, 위의 책, 하편, 37면.

39) 다카사키 소지 저, 이규수 역, 위의 책, 192면.

40) 葛目忠雄, 위의 책, 하편, 389-405면.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3호 (2020. 08. 31)

나 그의 성공은 ‘제국 일본’이 배경이 되었기에 가능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연구논문

전성현, 「식민자와 식민지민 사이, ‘재조일본인’ 연구의 동향과 쟁점」 『역사와 세계』, 효원사학회, 2015.

정연태, 「대한제국 후기 일제의 농업식민론과 이주식민정책」 『한국문화』 14,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3.

최원규, 「19세기 후반·20세기 초 경남지역 일본인 지주의 형성과정과 투자사례」, 『한국민족문화』 1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9.

번역서 및 외국논저

葛目忠雄, 『いごつそう傳記(前篇, 後篇)』, くずめブドウ研究所, 1980.

다카사키 소지 저, 이규수 역,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 역사비평사, 2006.

기타자료

『동아일보』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구지』, 1993.

<Abstract>

Immigration of the 'grassroots colonizers' to chosun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ism
-About the life of a Japanese immigrant in Gupo 'Hyangdo' area

Lee Gayeon

Since the annexation in 1910, the Japanese government has made numerous policies for colonial rule. In order to apply these policies to the colonies, the subject of action was essential. In the process, the Japanese who lived in Chosun became representatives of colonial power and faithfully performed their roles. That's why they are called "the vanguard of aggression," "the grassroots aggressor," and "the grassroots colonial rule." The migration of unknown ordinary people from the Japanese Empire to Chosun became a strong root in Japan's colonial rule. The number of Japanese migrants to Chosun, which was over 100 at the time of the opening of the port in 1876, increased dramatically through the Russo-Japanese War and forced annexation, reaching about a million around the time of defeat.

Tadao Kuzume(葛目忠雄), an ordinary Japanese, moved to Chosun in 1912 with the determination that he would never go back to Japan. And he set up a base for his life in Gupo "Hyangdo". He mainly ran an orchard here. In 1927, he moved to Buam-ri, Seomyeon, Dongnae-gun and ran a grape farm. In 1939, 27 years after he moved to Chosun, he left Chosun and went to Manchuria to work in the automobile repair business. And when he heard that Japan lost the war, he left Manchuria on August 9, 1945 and returned to the port of Sasebo in Nagasaki on October 5, 1946.

After that, he went around Nagasaki and Kumamoto to do business, and eventually resumed his grape business in Kumamoto. In the early and mid-20th century, Tadao Kuzume moved to Japan-Chosun-Manchuria following the expansion of the Japanese empire, and "successful" here, where he could stand superior as a colonial ruler. It was possible for him to "success" in the colony because of the background of the "Japanese Empire," although individual efforts were of course important.

Keywords : Empire of Japan, Migration, Hyangdo(향도), Daejeo(대저), Japanese

settler in Chosun, Colonizer

논문접수일 : 2020년 07월 03일
심사(수정)일 : 2020년 07월 31일
게재확정일 : 2020년 08월 26일